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7. 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EU, '가상화폐' 활용 자금세탁 방지 규제안 잠정합의
 - 6.30 EU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기업을 규제하는 방안에 잠정합의, 이에 同 거래소 대상 모든 가상화폐 거래 관련 개인정보 확보 및 관계당국 요구시 제출 의무 부과
 - * 잠정안에는 거래액 1천 유로(약 135만원) 이상일 경우 비인증거래소가 관리하는 가상화폐 지갑(가상화폐 거래소 가입시 주소 자동생성)도 동일 의무 부여
- 프랑스, 아프리카 사헬지대 '대테러작전' 중단
 - 7.1 프랑스 軍은 자국군 주도로 EU 14개국 600여 명의 특수전 병력이 함께 수행하던 「타쿠바 TF」* 대테러임무를 6.30부로 종료하였으며, 現 주둔국 말리에서 다른 국가로 병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
 - * 「타쿠바(Takuba) TF」는 '20.3월부터 사헬지대 지하디스트 격퇴를 목표로 임무를 수행해 왔으나, '20.8월부터 말리 군부의 계속된 철군 압박으로 임무 조기 중단
- 佛, ISIS 전투원 가족 '집단귀국' 첫 허용
 - 7.6 佛 외교부는 시리아 북동부 수용소에서 생활하던 프랑스 국적 ISIS 전투원 가족 51명(여성 16, 자녀 35)의 귀국을 허용, 그중에는 ISIS 조직원으로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지목되었던 「에밀리 코니그(37세)」도 포함
 - * 성인은 귀국 후 佛 사법 당국 조사를 거쳐 테러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 有

미주

- 美, 뉴욕州·市 검찰 유령총 부품 불법 유통社 제소
 - 6.30 美 뉴욕州·市 검찰은 온라인상 유령총 부품을 불법 유통시킨 판매 업체 15곳을 적발·제소하는 한편, 일련번호 추적이 불가능해 그간 총격사건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되어 온 유령총 유통을 불법으로 규정
 - * 뉴욕內 유령총 적발건수는 '20년 150건, '21년 263건, '22.6월 기준 180건으로 매년 증가

○ 美, '헤즈볼라 테러 대응 방안' 논의

- 美 국무부는 지난 6.29~30 유럽에서 개최된 「제9차 법집행 조정 그룹(LECG)」 회의를 통해 인터폴 및 30여 개국 정부기관 등과 헤즈볼라의 테러활동 적발·대응 및 각국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

* LECG : Law Enforcement Coordination Group

** 美國은 국무부 뿐만 아니라 법무·재무부, FBI(연방수사국), DEA(마약단속국)도 참석

아 · 태평양

○ 뉴질랜드, 美 백인우월주의 단체 '테러조직' 지정

- 6.30 뉴질랜드 정부는 '백인우월주의' 사상을 기반으로 활동중인 美 극우단체 「프라우드 보이즈(Proud Boys)」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였으며, 자금 모금 및 회원 모집 등 同 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

* 同단체는 '16년 창설되어 극단주의 활동을 이어왔으며, '21년 캐나다에서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'美 국회의사당 점거사건' 관련 조직원 다수 기소

○ 탈레반, 아프간內 ISIS-K 지원행위 전면 금지

- 7.3 탈레반은 지난달 30일부터 개최된 「로야 지르가」 회의에서 “ISIS-K (호라산지부)는 이슬람 국가에 타락을 퍼트리는 가짜 종파이며, 이들과의 어떠한 도움이나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금지한다”는 내용의 성명 발표

* 한편, ISIS-K는 탈레반이 작년 8월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 테러 수위 강화

중 동

○ 이스라엘, 지중해 가스전 상공에서 헤즈볼라 '무인기' 격추

- 7.3 이스라엘 軍은 지중해 카리쉬 가스전을 향하던 헤즈볼라(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) 드론 3대를 자국군이 격추했다고 발표하였으나, 헤즈볼라는 “격추된 드론은 정찰용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”고 강조

* 이스라엘은 지중해에 설치한 카리쉬 가스전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, 레바논은 해당 지역이 영유권 분쟁수역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 고조

나이지리아 중학교 기숙사 겨냥 총기난사 테러

- '13.7.6. 새벽 무장괴한들이 나이지리아 북동부 요베州 마무도 지역의 중학교 기숙사에 난입, 총기를 난사하고 교실을 방화, 교사·학생·직원 등 42명이 사망하고 최소 6명 이상이 부상
 - * 생존자들은 무장괴한들이 희생자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총기를 난사한 후 폭발물을 투척했으며, 나중에는 학교에 연료까지 뿌린 후 방화했다고 진술
-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없었으나, 전문가들은 그간의 범죄 유사성을 근거로 서구식 교육을 죄악시하며 이슬람 神政國家 건설을 주장중인 테러단체 '보코하람'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
 - * 보코하람은 2010년부터 학교를 목표로 이미 수백 여명의 학생을 살해하였으며, 同 사건 직전인 6.17과 7.4에도 요베州 학교를 겨냥하여 공격을 자행
- 사건 직후, 「가이담」 요베州 주지사는 “테러범들은 냉혈한 살인범이자 극악무도한 악마”라고 비난하는 한편,
 - 추가 사건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新학기가 시작되는 9월까지 임시 휴교령을 지시하고
 - 테러 발생 긴급상황에서 통신 불량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고가 지연되었다며 정부측에 관련 시스템 장애 복구 요청

테러 상식

< 보코하람(Boko Haram) >

- (결성) 2002년 「무함마드 유수프」가 조직
 - * 테러단체 지정 : 영국('13.7), 미국('13.11), UN('14.5)
- (목표·이념) 나이지리아·니제르·카메룬·차드 등 서아프리카內 샤리아 (이슬람 율법)에 기반하는 이슬람국가 건설
- (조직규모) 약 2,000명('19.7, UN), 수천명('19.10, 美 국무부)
- (연계세력) ISIS, 바쿠라그룹(전투원 약 450명)
- (활동지역) 나이지리아 중북부, 카메룬 북부, 차드 서부, 니제르 남동부 일대
- (활동수법) 對정부 게릴라戰, 마을 습격 및 민간인 무차별 학살
- (주요테러) '13.9 요베州 농업학교 기숙사 총기난사(사망 40여명)
'15.7 보르노州 자바르마리 마을에서 여성테러범 자폭(사상 150여명)
'19.7 보르노州 장례식장 공격(사망 60여명) 등